

“Stanford University,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Travel and Leisure가 2023년도에 가장 아름다운 미국 대학 캠퍼스 25곳을 발표했다. 이 매체가 선정한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을 소개한다. 괄호 속은 소재지이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대학은 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과 그 가족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물려든다.



▲ 스탠포드 대학 팜 드라이브에서 바라본 Memorial Church, 사진=Stanford.edu

1위: Stanford University (캘리포니아)
8,180에이커에 달하는 스탠포드 캠퍼스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중 가장 웅장하다. 1마일 길이의 나무가 늘어선 팜 드라이브는 붉은 지붕의 건물과 캠퍼스의 대표적 건축물인 모자이크 외관이 인상적인 기념 교회로 둘러싸인 넓은 녹색 타원형의 메인 퀘드로 이어진다. 맑은 날에는 후버 타워 전망대에서 캠퍼스 전경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2위: Berry College (조지아)
27,000에이커가 넘는 들뜬, 호수, 숲, 산으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캠퍼스다. 학교의 최대 후원자인 헨리 포드가 지은 포드 다이닝 홀, 포드 오디토리움, 메리 홀과 같은 아름다운 영국 고딕 양식의 건물 근처에 수많은 반사 수영장과 분수대가 있는 등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다.

3위: University of Notre Dame (인디애나)
이 학교를 대표하는 네오 고딕 양식의 성심 대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 노트르담 본관의 반짝이는 황금빛 돔도 놓치기 어렵다. 화려한 건축물 외에도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수업이나 축구 경기장에 있지 않을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모이는 울창한 퀘드가 가득하다.

4위: Florida Southern College (플로리다)
색색의 유리 조각과 연철 탑이 있는 애니 파이퍼 채플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물 컬렉션이 있다. 라이트가 직접 “미국 최초의 독특한 캠퍼스”라고 불렀으며 2012년에는 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5위: University of San Diego (캘리포니아)
정교한 외관, 섬세한 철공예, 조각된 목공예가 돋보이는 스페인 르네상스 스타일을 고집한다. 바다 전망과 아자수가 늘어선 안뜰은 캠퍼스 안의 낙원 같은 매력을 더하고 있다. 질푸른 돔과 단단한 청동 정문으로 이루어진 이마쿨라타 예배당은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캠퍼스에서 사진 찍기 좋은 랜드마크 중 하나다.

6위~10위는 Bard College(뉴욕), Rice University(텍사스), Cornell University(뉴욕), The University of the South(테네시), University of Washington(워싱턴)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velandleisure.com/attractions/colleges-universities/americas-most-beautiful-college-campus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은 수험생을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이란 개인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남긴 흔적을 말한다. 여기에는 검색 기록, 방문 기록, 구매 기록, 소셜 미디어 활동, 이메일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기반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페이스북과 틱톡 등을 통해 활동하는 예비 학생들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데이터가 지원자의 입학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2017년 6월, 하버드 대학은 10명의 합격생을 인종차별 발언을 이유로 합격 취소 처분했다. 이 학생들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흑인들은 멍청하다”라고 말했다고, 다른 학생은 “히스패닉들은 범죄자다”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은 이 학생들의 발언이 “대학의 가치와 신념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미국 대학들은 예비 학생들의 SNS 활동을 통해 자기 대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여러 대학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은 학생의 입학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데이터(웹사이트 방문, 투어, 대학 박람회 테이블에 들렀는지)에 의존하여 수험생의 관심도를 평가한다.

1,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 담당자가 여행 및 이벤트를 계획하고, 문자와 이메일을 전달하고, 지원서

를 처리 및 검토하고,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고등 교육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Slate Technologies를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입학 담당자는 Slate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출장 및 마케팅 모집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지원자 수를 예측하고, 연간 등록을 계획할 수 있다.

예비 대학생 대부분은 지원하고 싶은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학생들이 한 대학에만 눈길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훌륭한 옵션을 고려하여 신중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아이비리그와 같이 매우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도를 추적하지 않지만(그럴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어디를 방문할지, 누구에게 홍보물을 보낼지, 궁극적으로 누구를 입학시킬지 결정하기 위해 지원자의 참여도 또는 참여 부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원할 대학의 웹사이트에 등록(정보 요청)하고,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가상 투어를 해보자. 예비 대학생으로 지원할 각 대학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리하다. 대학들은 디지털 발자국을 통해 꼭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전략적으로 지원할 대학에 가고 싶다는 사인을 디지털로 보내면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사장님,
칭내세요!
태백나게 도와 드릴게요.

태백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